

Open Doors

2019. 01. Vol. 201

박해와 선교현장
예멘 Yemen

Yellow ID

@opendoors를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친구추가 하세요.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믿음으로 사는 삶

김성태 교수(오픈도어 이사장)

1980년대 말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북한선교의 부름을 받고, 그 당시 외교관 계가 없었던 중국을 한국정부의 특별허가를 받고 한 달여 선교여행을 하였습니다. 여행 첫날부터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북경에서 저를 만나서 중국의 동북 삼성지역을 안내하기로 약속되었던 조선족 사역자가 제가 홍콩과 상해의 육로여행에서 사흘 정도 지체되었기에 북경을 사흘 늦게 도착하므로, 그 조선족 안내자는 제가 안 온다고 생각하고, 고향교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밤 꿈에 이 청년을 간섭하셨습니다. 사흘 후에 이 청년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북경의 약속장소로 왔고, 거기서 저를 만났습니다. 서로 간에 확인한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저의 30년 동안의 북한선교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실로 도처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한 가운데 총신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북한선교의 부르심과 북한교인들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떨쳐 버릴 수가 없는 가운데 시간이 나면 중국을 여행하였습니다. 자비량 선교의 한계와 중국여행의 고달픔은 어느 순간 저를 낙심케 하였고, 과연 북한선교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부르심인지 회의의 심각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지금도 알 수 없는 무명의 한 성도를 통해서 그 당시 막대한 선교현금이 들어왔고, 얼마 후 제 삼국의 모처에 있는 한 조선족 교인이 북한 내지에 있는 본인의 친인척 지하교회 지도자에게서 성경제작과 성경배달을 부탁받았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이 북한선교를 간섭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정확한 시기를 아셨고, 모든 것이 준비되도록 섭리하셨으며 사탄의 공격과 성도의 고난과 부르심 받은 일꾼의 연약함도 함께 어울려져서 하나



님의 뜻을 이루도록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부르심 받은 일꾼의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확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때론 우리의 지각을 뛰어 넘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앞뒤를 재며 내게 유익할 것이지를 따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의 자격미달의 모습입니다. 때론 이상한 인도하심처럼 보일지라도 성령의 감동하심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이 찾아온다면 믿고, 순종하는 일꾼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즈음의 세태는 너무나 악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자아가 너무 강하고, 자기주장과 자기 사랑이 우선입니다. 불신자처럼 모든 것을 계산하고,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느껴지면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몇 년 동안 제 삼국의 북한선교현장에 보낼 현장선교사들을 찾았는데 마땅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누구도 위험하고, 고생할 선교현장을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북한선교를 외치지만 막상 선교현장으로 갈 사람들은 변명과 핑계가 많습니다. 자격 없는 일꾼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선교현장이 위태롭습니다. 후원하는 교회가 지쳐가고 있고, 믿음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마땅한 선교동역자를 찾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비록 어렵고, 힘들든 길이라도 결단하여 행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 중에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04



06



14



16



18

04 북한 선교 현장_나의 출애굽기Ⅷ

06 박해와 선교 현장 예멘-Yemen

14 한국오픈도어 기도봉사 인터뷰

16 오픈도어 사역

사회경제적지원사역 : 수단(Sudan)

18 오픈도어 뉴스

박해뉴스: 인디아(India)

20 북한 사역자 모집

21 오픈도어 박해 퍼즐

22 오픈도어 지역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3 북한캠페인_북한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OpenDoors

2019년01월호 | 통권201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박종배, 최홍규, 김성곤,

박윤환, 오정호, 이동현, 배춘섭, 양성찬, 김윤태 목사

사무총장_이종만 목사

정보/행정/재정_정규일, 오현정 간사

북한선교_제나, 이다니엘, 루나, 리디아, 나오미 간사

발행처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596-3171 / 070-7522-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_정규일 목사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후 원 계 좌 〉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오픈도어선교회: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시리아예희망을: 우리은행 163-099071-02-101 (김성태)

순교자 자녀와 미망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가족트라우마: 우리은행 1005-001-884989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나의 출애굽기 VIII

드보라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건넌 나는 우리와 일을 했던 대방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브로커를 통해 무역 대방의 친척을 찾을 수 있었다. 듣게 된 소식은 암담한 것뿐이었다. 우리와 거래하던 대방이 중국 내에서 불법 활동으로 붙잡혔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조립해서 주는 물건들은 기본적으로 새것이 아니고 헌 물건 여러 지를 짜집기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속에 걸린 대방은 거래하던 물건의 양이나 금액이 커서 뇌물로 무마하지 못하고 형을 고수 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 머리 속은 새하얘졌다. 당장 대금을 받을 방도가 요원해졌기 때문이다.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당에서 요구하는 돈을 상납하지 못할 것이 뻔할 뿐 아니라 잘못하면 감옥에 가게 생겼다.

연결된 대방의 친척 집에 잠시 머물면서 방도를 궁리해보았다. 당장 급한 대로 돈을 마련해야 했다. 마침 강을 건널 때 혹시나 해서 집어 들고 온 약간의 골동품들이 있었다. 물건 거래할 때 끼워 팔던 것들이다. 골동품을 살 사람을 연결해서 물건을 보여주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가져온 물건들을 보더니 가우뚱 하면서 정확하게 값을 매기기 위해서는 진품 여부를 검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는 검수를 위해서는 큰 도시로 물건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하며 가져가서 확인하고 1주일 뒤에 오겠다고 했다. 너무도 순진했던 나는 그 말만 믿고 물건을 내어주고 말았다. 1주일만에 온다하던 그 사람들은 다시 오지 않았다.

마음은 답답하게 옥죄어 오는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골동품도 사기를 맞은 데다가 업친데 덤친 격으로 큰 비가 와서 독이 넘어갈 정도로 강이 넘쳤다. 이제는 강을 건너는 것도 어려워졌다. 대방의 친척집 독방에 숨어 있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연고도 없는 집에 머무를 수는 없는 일이다. 한 20일정도 지났을까...



머물던 집에서 지금 이곳도 공안의 단속이 심해서 위험하니 좀 더 내륙으로 들어가라고 권했다. 사람도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다. 별다른 대안이 없었던 지라 나는 그 말을 듣고 내륙으로 들어갔다. 중국 안에서 이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내가 머물던 대방의 친척집의 한 분이 나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내륙 어느 동네로 데리고 갔다. 가는 도중에도 검문소가 곳곳에 있었다. 택시기사가 예민하게 검문소가 있는 것을 보고 우리를 내리게 해서 산을 돌아서 오도록 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무인 지경의 산을 3시간이나 넘어서 약속한 장소로 와서 다시 택시를 타기도 했다. 그렇게 고생해서 도착한 어느 마을, 그 아저씨는 이름 모를 낯선 집에 나를 소개해주고는 자기 갈 길을 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이 인신매매하는 집이었다. 할아버지 같이 주름 많은 얼굴에 키도 조그만 남자 한 이 그 집에 와서는 나를 데리고 갔다. 그때까지도 나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북에서 인신매매라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배경지식이 없었다. 그 저 유언비어로 떠도는 중국에서는 북한 여자들 피 뽑아 판다는 소리가 기억나서 나도 피 뽑히는 건가 싶어 무서워했을 뿐이다. 그 할아버지 같이 생긴 나이든 남자는 나를 데리고 근처의 자기 누나 집으로 갔다. 거기서 3일 밤을 있었다. 도대체 뭘 일인가 싶어 보니 그 사람이 나의 남편 될 사람이라며 함께 살게 되었다고 했다. 갑자기 맘에도 없는 남자와 함께 살아야 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사실 그때까지도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당장의 인신매매가 아니었다. 어떻게 하면 북으로 돈을 송금을 할 수 있을까였다. 그 자와 버스를 타고 가면서

나는 엉뚱하게 장사할 생각을 했다. 이전에 대방과 거래를 하면서 처음에는 대금을 돈으로 받았지만 나중에는 옷이나 다른 팔 수 있는 물건으로도 받았다. 중국에서 옷이나 물건을 받아 파는 것이 훨씬 수익이 컸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중국에서 자리잡고 여기서 물건을 떼어 북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식으로 장사를 하게 되면 이번에 망가진 거래로 인한 대금을 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나는 가족하고 직접 거래하니 중간에 사람 때문에 문제되는 일도 적을 것이다. 이런 물정 모르는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렇지만 그 남자는 자기는 무역하는 것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와 함께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거라고 했다. 북에 있는 형제들, 아이들, 가족들이 생각났다. 나는 상황 파악도 안되면서 가족들과 헤어진다는 생각에 막 사정을 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지금 내가 돌아다니다가 잡혀가면 끝장인데 그냥 갈 거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가는 곳은 농촌이라 외진 곳이지만 안전하다고 했다. 혼자 공안을 피해 다닐 자신이 없었던 나는 별 수 없이 그 사람을 따라 나섰다. 그 사람은 나를 데리고 더 깊은 시골로 갔다. 그 사람과 함께 도착한 곳은 얼마나 외진 곳이던지 눈에 보이는 것은 산 밖에 없었고, 그 사람의 집은 북한에도 보기 힘들 정도의 허름한 낡은 시골 집이었다. 장사 같은 것은 당연히 꿈도 꾸지 못할 곳이었다.



예멘 *Yemen*



-인구: 28,915,284명 기독교인구 수천 명

-박해정도: 매우 극심함(9위)

-수도: 사나(Sana)

-주 박해요소: 이슬람의 억압(Islamic oppression), 부족간 갈등(Ethnic antagonism),
구조적 범죄 및 부패(Organized corruption and crime)

예멘은 2018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에서 85점을 받으며 9위에 올랐는데, 이는 2017년과 동일한 점수 및 순위이다. 작년과 점수는 동일하지만 압력과 폭력 항목의 점수에는 변동이 있었다. 보고된 폭력 사태의 수가 줄어든 반면, 내전으로 인한 전반적인 압력은 증가하였다.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예멘의 기독교인들은 내전 중 증가하는 급진적인 이슬람 무장 단체들의 영향 아래 있다. 이는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한 토착 기독교인들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는 요소이다. 예멘 내 이주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예멘을 떠남에 따라 예멘 교회의 구성원들의 다수가 이슬람 배경을 가진 토착 기독교인들이다.



예멘의 박해상황

1. 박해원인

이슬람의 억압(Islamic oppression): 예멘의 헌법은 이슬람을 국교로, 그리고 코란과 무하마드의 가르침에 기초한 이슬람의 법률인 샤이아(Sharia)를 입법의 기초로 할 것을 천명한다. 이슬람 이외의 종교는 금지하며 무슬림들의 여타 종교로의 개종 또한 금한다. 따라서 이슬람을 떠난 예멘인은 누구든지 사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전시 상황에서 IS와 알카에다와 같은 이슬람 무장 단체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들 단체가 기독교 박해의 주 원인이 된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삼으며 살해한다.

부족간 갈등(Ethnic antagonism): 예멘 사회에서는 부족이 우선시되어 정부 권한이 부차적인 경우가 많다. 이슬람 종교 또한 부족 정체성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예멘의 많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부족의 연장자가 이슬람 교리에 입각한 전통에 따라 법과 정의를 국가의 헌법과 정책 결정에 상관 없이 집행한다. 또한, 정부는 부족 간 갈등에 개입하지 않으며, 부족 갈등이 신체적 폭력과 불법적인 감금을 수반할 때에도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고수한다. 부족 자체 법에 의하면 부족 구성원들이 부족을 이탈하는 것, 여성의 경우 부족 외 구성원과의 결혼을 금지하는데, 특히 기독교인들의 경우 이와 같은 부족 법에 대한 불복종 시 추방을 당하거나 살해되기도 한다. 한 정치 전문가는 예멘 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슬람이 곧 예멘 내 모든 부족을 관통하는 정체성이다. 이 부족들이 주체가 되어 이슬람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보복의 정의를 구현한다.”

구조적 범죄 및 부패(Organized corruption and crime):

현재 예멘 내에서는 무정부주의와 부패, 사법 질서의 부재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 정부의 부패는 예멘 사회 곳곳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정부 관료들은 여러 부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특정 부족에 호혜적인 정책을 펼친다. 예멘으로 온 이주 기독교인들과 서양인들은 특히 납치와 같은 범죄에 취약한데, 이러한 사건의 경우 타겟이 된 기독교인의 고향으로 보여지는 재정 상태와 신앙의 척도가 크게 작용한다. 전시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법 질서의 혼란은 예멘 내 조직적 범죄와 부패를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2. 박해배경

예멘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각 계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 관료부터 폭력적 종교 단체, 확대 가족, 부족, 비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다. 특히 정부는 모든 예멘인들을 무슬림으로 여기는 이슬람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펼친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끄는 외세의 개입은 권력의 공백을 초래하였고 이는 IS와 알카에다와 같은 광적인 종교 운동의 확대로 이어졌다. 이들은 이슬람에서 개종한 예멘인 기독교인들과 외국인들을 살해하기도 하며, 재정적, 종교적 이유로 납치한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전환한 개종자들은 주로 확대 가족과 부족 지도자로부터 압력을 받고 폭력을 당한다. 이슬람교의 이맘과 같은 비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을 선동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주축이 된 외세의 간섭과 서방 세계로부터 유입되는 무기는 권력의 공백, 그리고 IS와 AQAP(알카에다의 아라비아 반도 지부 및 분파)와 같은 급진 이슬람 세력의 기독교인을 향한 공

격을 면책 특권과 함께 허용한다. 서구로부터 유입된 무기를 손에 쥔 급진적인 무장 세력이 현재 예멘의 교회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위협이다.

■ 예멘의 내부 상황

예멘은 현재 시아파 후티(Houthi) 반군과 국제적으로 그 지위를 인정 받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내전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시아파 이슬람 국가인 이란으로부터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 받는 후티 반군에 대하여 예멘 정부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는 대표적인 수니파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가 예멘 상공에서 주거 지역, 기반 시설, 문화 유적지, 병원에 대하여 폭격을 가했다. 이 군사 공습은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수니파 무슬림 국가 약 10개국의 연합 세력의 지지 가운데 서방 세계에서 유입된 무기로 전개되었다. 알카에다와 IS를 포함한 극단적인 수니파 단체들은 혼란스러운 시국을 그들의 영토와 세력 확장의 기회로 삼고 있다. 내전이 지속되면서 더 많은 국가들이 중동 지역 헤게모니를 두고 벌이는 사우디와 이란 사이의 각축전에 참전하고 있다. 장기화된 내전은 중동 지역의 종파간 부족간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예멘은 부족적 성격의 북예멘과 공산주의의 남예멘이 오랜 내전 끝에 1990년에 통일 하여 단일 국가가 된지 얼마 안된 비교적 어린 국가에 속한다. 하지만, 남예멘의 분리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남예멘이 분리 및 독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알리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의 축출 이후 예멘은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 권력의 공백 가운데 IS와 알카에다와 연관된 무장 단체와 반군들이 그들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3월에는 한 시아파 후티 반란군은 예멘 수도 사나에 위치한 공항, 주요 정부 시설들과 일부 북부 지역을 점령한 후 압드 라보 만수르 하디(Abd Rabbuh Mansour Hadi) 대통령과 그 정부를 사우디 아라비아로 추방시켰다. 2015년 7월에는 3월부터 지속되었던 사우디 아라비아를 주축으로 한 연합 세력의 공습에 힘입어 정부 세력과 남부 무장단체들이 후티 반군으로부터 아덴 지역의 통치권을 되찾았다. 9월에는 하디 대통령이 아덴으로 돌아왔



예멘 내의 기독교 공동체들과 그들이 받는 영향

다. 동시에 알카에다의 아라비아 반도 지부 및 분파인 AQAP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남예멘에서의 통치 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5년 3월부터는 IS와 연계된 무장 단체들이 시아파와 정부 관련 단체를 공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예멘은 전쟁으로 인해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다.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약 10,000명의 예멘인들이 사망하였으며 약 300만명의 예멘인들이 난민이 되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한 UN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된 내전으로 인해 물과 위생 시설이 무너지고 있으며 보건 시설의 반 이상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 약 1500만명의 인구가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으며, 나라 전체가 기근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한다. 약 385,000명의 어린이들이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으며, 설사병과 콜레라와 같은 질병에 취약한 상태이다. 다른 예멘인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도 전쟁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고향을 떠나 근접 국가로 피난을 떠난다.

예멘 내에 있는 소수의 바하이교(Bahai) 신자들도 박해를 받는데, 급진적인 무슬림들은 바하이교도들을 이교도들로 여긴다. 19세기 바하이교의 발생지였던 이란과 결부되어 있다고 의심을 받아 차별을 받기도 한다.

박해 받는 예멘 기독교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외국인 또는 이민 기독교인: 예멘 기독교 인구의 대부분이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아시아, 아랍 국가에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이거나 주로 에티오피아에서 온 난민이다. 이들은 대부분 로마 카톨릭 신자이거나 영국 성공회 교도다. 에티오피아 난민 중에는 동방 정교회(Orthodox) 신자도 있다. 내전으로 인한 보안 문제로 서구 국가 출신의 외국인 다수가 이미 예멘에서 철수했다.

무슬림배경의기독교인(Muslim Background Believer, MBB): 무슬림에서 개종한 현지 기독교인은 극심한 핍박 아래 놓여있기에 사실상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이들은 정부로부터 구급을 당하고 친족의 박해를 받을뿐더러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의 공격을 받게 된다. 이들 이슬람 세력들은 다시 이슬람으로 돌이키지 않는 배교자들을 죽음으로 위협한다. 현지 무슬림배경의기독교인(MBB)의 규모는 몇 백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멘의 모든 기독교인이 이슬람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당한다.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외국인이라는 사실도 이에 한 몫 한다. 이들은 비무슬림 일뿐 아니라 종종 국가와 부족 정체성에 대한 침입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예멘에서 매우 활동적인 알 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 (Al Qaeda in the Arabian Peninsula, AQAP)는 그 존재 자체로 국내 기독교인에게 위협이 되며, 이미 여러 차례 기독교인을 공격, 유괴 또는 살해했다.

■ 각 영역에서의 박해 정도와 폭력

개인 영역:

무슬림 출신 개종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다. 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상을 풍기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반해, 국외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비교적 더 자유롭다.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가정예배는 점점 위험해지고 있으며, 알 카에다(Al Qaeda)는 나라의 많은 영역에서 그 영향을 행사하며 다스리고 있다.

가족 영역:

모든 예멘 국민은 무슬림으로 여겨지게 된다.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라도 이슬람의 믿음을 버리는 것은 무슬림 가족에게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무슬림 출신 개종자들은 가족에게 신앙생활이 발각될 경우 살인이나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는 극심한 위협에 놓여 있다. 예멘에서 기독교인은 공개 결혼식을 할 수 없으며, 무슬림 출신 개종자들도 이슬람 의식에 따라 결혼해야 한다. 무슬림 출신 개종자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기독교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그들의 자녀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이슬람 교리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 양육권의 경우, 가족 구성원이 무슬림이면 그리스도인은 그 가족에서 제명당하는 사례가 많다.

지역사회 영역:

이슬람 사회인 예멘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특히 알 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AQAP)에게 암묵적으로 위협당하고 있다. 이런 위협들은 어떤 형태로든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인 종교생활을 단념하도록 유도한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공식적인 불법으로 지정된 이후, 무슬림 출신 개종자들은 지역 이슬람 공동체로부터 정

부당국에 개종 사실을 신고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무슬림 출신 개종자들 가운데 여성들은 아직도 무슬림으로 간주되어 베일을 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기독교적 믿음이 발각될 경우, 그들은 가족 구금이나 결혼을 강요 받는 위협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외향적인 여성들 역시 피해를 입는다. 여성들이 베일을 쓰지 않는다면, 특히 작은 마을일수록 괴롭힘을 받는 경우가 많다.

국가 영역: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이슬람 율법과 국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무슬림 출신 개종자들은 믿음이 발각될 경우, 죽음의 위협에 놓일 수 있다. 내전이 일어나는 동안 외국인 및 이민자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들을 개종시키는 데 활발하게 관여한다면, 투옥이나 추방과 같은 국가 차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정치적인 현안에 더 집중할 동안에는 대부분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탄압해 왔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활동들이 예멘을 매우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외국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 예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감시 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들에게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슬림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 현재 시아파(Shiite) 반란군과 알 카에다와 연계된 무리가 국가의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무법 상태에서 고통 받고 있다.

교회 영역:

아덴(Aden) 지역을 제외하고 예멘에서는 교회가 금지되어 있다. 외국인 그리스도인과 난민을 위해 세워진 아덴의 공식적인 교회 네 곳도 내전으로 파괴되어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그래서 이민자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개인 숙소로 모인다. 무슬림 출신 개종자들은 그들만의 모임을 가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그들은 비밀장소에서 모여야만 한다.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불법이며, 아라비아 반도에서 다른 기독교 서적들을 비롯해 성경을 가르치고 출판하며 수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폭력:

조사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재판을 받지 않고 살해되거나 억류되었다는 보도는 없었다. 또한 교회 나 기독교 건물 폐쇄 사건이나 공격 사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국가 내 소수의 교회 건물은 내전과 박해 관련 상황에서 이전에 공격을 당한 후에 폐쇄되어 있다. 내전으로 인해 현지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다. -이슬람교에서 적어도 20 명의 개종자가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 신앙과 전쟁 때문에 느끼는 죽음의 위협을 포함했다.

신앙 관련 이유로 약 70 명 정도의 10개 가정이 이주해야 했다.

개종자가 나라를 떠날 때, 종종 고립되어 있고, 무슬림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폭력에 취약하다.

인도계 사제 한 명이 납치되었다



예멘(Yemen)의 상황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들

최근의 역사

예멘은 비교적 '젊은 국가'로 수년간의 무력 충돌 이후 1990년 씨족에 기반을 둔 북부 예멘과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한 남부 예멘이 통합되었으나 오늘날 남부지역에서는 분리주의 운동이 여전히 강력하게 진행 중이며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다.

최근 북부지역에서 종족간의 폭력과 싸움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후티 반군은 정부탄압에 대해 항의하며 수니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북부지역을 시아파가 회복하여 지배하기를 원하고 있다. 2012년 알리 압둘라 살리 전 대통령 축출 이후 예멘은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폭력사태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권력 공백으로 인해 알카에다와 IS 같은 민병대와 반군들이 영토를 장악하려고 싸우고 있다. 2014년 9월, 후티반군은 예멘의 주요 수니파 이슬람당인 이슬라(Islah) 같은 적대군들과 싸우게 되었다. 이듬해 3월, 수도 사나에 위치한 공항과 정부 주요 기관 및 북부지역을 장악한 후티 시아파는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과 정부관리자



들을 사우디 아라비아로 추방시켰다. 그해 3월에 결성된 사우디 수니파가 주도한 연합정부의 군대와 공습의 지원을 받아 7월 정부당국에 충실한 군부대와 남부지역 민병대가 아덴 지역을 되찾았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후티 반군을 상대로 한 군사교육을 시작했는데, 그 배경에는 한편으로 이란의 영향력에 대응하고자 한 시도도 포함되어 있다. 2015년 9월 하디 대통령은 아덴으로 돌아 왔다. CIA에 따르면 후티와 동맹한 군부대와 사우디 연합정부가 지원한 저항 단체 사이의 지상전투는 2016년 내내 지속되었다. 유엔의 휴전 중개후 2016년 중순부터 여러달 동안 공습과 싸움이 줄어들었다. 한편, 유엔이 지지한 쿠웨이트의 평화회담이 2016년 8월, 합의 없이 결렬되면서 갈등이 증가되었고 휴전 선언과 평화회담 재개를 위한 시도도 실패했다. 후티 반군과 살레(Salih) 정당은 2016년 8월 최고 정치 회의를 발표했고 그 해 11월에는 총리와 수십 명의 각료를 포함해서 총국민회의에서 수도를 차지하고 하디 정부의 적법성에 도전을 했다.



종교적 상황

대중의 시위가 가속화되면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알카에다의 영향력은 예멘 남부지역을 장악하고 세력을 넓히면서 점점 더 증가하기 시작했다. IS에 종속된 단체들 또한 2015년 3월부터 전쟁으로 황폐된 곳에 머물면서 시아파와 정부당국과 관련된 곳을 목표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기독교인 또는 기독교 국가 출신의 국외 거주자들이 지은 건물들이 목표가 되었다. 아덴 남부지역에 위치한 한 카톨릭 요양원이 2016년 3월 4일 공격을 받아 16명이 사망했다. 그들 중 4명은 마더 테레사(Mother Teresa)에 의해 세워진 카톨릭 공동체 애덕회 선교사들이었다. 예멘 당국에 의하면 IS와 연관된 폭행범들이 인도출신의 톰(Tom) 신부를 납치했다.

정치적 상황

BBC에서 언급된 것처럼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이 국내 불안 종결을 위해 물러나고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이 2012년 정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후티 반군이 수도를 장악하자 그는 2015년 1월 사임하고 망명했다. 그는 여전히 사우디 아라비아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충성스러운 군대가 후티 반군과 싸우려 하고 있다. 그는 아덴을 임시수



도로 지정했다. 예멘은 현재 정치적으로 중립입장에 있다. 후티 반군은 의회를 해체하고 모하메드 알리 알 후티가 이끄는 과도기 혁명 의회로 대체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유엔과 미국과 걸프 협회 회의는 알 후티의 통치 인정을 거부했다.

사회 경제적 상황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 따르면, 사우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친정부는 후티 반군과 동맹자인 알리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과 갈등상태로 남아 있다. 임박한 평화협정의 징조는 없으나 순식간에 대폭 감소된 경제 자원과 군사압력으로 인해 2017년 말까지 후티반군이 거래를 받아들이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드 단체들은 2017년부터 21년까지 위협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한편 석유 수출을 작게나마 다시 시작하려 노력함에도 경제상황은 인도주의적 재난을 야기시키며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실업률은 견잡을 수 없고 인구의 80퍼센트가 인도주의적 지원에 의지하고 있다. 물과 밀가루와 같은 상품 가격은 치솟고 있으며 포위된 도시 안의 상품가격이 5000 퍼센트나 증가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기와 물 공급이 중단되었다. 전쟁이 멈춘다 해도, 예멘은 장기적인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어 물 자원 감소, 높은 실업률과 높은 인구 성장률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0년 안에 수도 사나의 물은 고갈될 수 있다. 마약성 식물인 카트(qat) 재배로 인해 물의 부족이 증가하고 있다. 예멘 인구의 3분의 1이 영양부족을 겪고 있으며 전쟁 전과 비교해서 45퍼센트 공식적인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다.

예멘도처에 부족 중심의 사회가 매우 강하게 자리잡고 있어서 정부당국은 부족의 통치방식의 전통적인 방법에서 볼 때 이차적인 기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기관은 부족에서 구성원에게 육체적인 피해를 가하거나 구금시킬지라도 부족간의 갈등에 개입하려 하지 않는다. 부족의 법과 관습은 구성원이 부족을 떠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기독교인과 같은 부족 밖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종종 사형이나 추방을 당하게 된다. 비슷하게 이슬람은 예멘의 모든 부족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

정체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을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보복적인 정의를 가하는 것도 부족이다.

결론적 요약

전쟁으로 인해 예멘은 폭력수준이 심각하고 무법천지 상태가 되면서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소수 민족들에 대한 억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경제자원이 고갈되고 군사압력으로 인해 후티 반군이 2017년 말까지 거래를 완료한다 하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평화적인 해결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하지 않고 있다. 예멘 스스로 중동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인도주의적 재앙에 처한 현실을 알고 있다. 인도주의와 경제적 조건이 상당히 좋지 않아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외국 원조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멘은 걸프 동맹국으로부터 재건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석유가격의 하락 같은 외부적인 경제 요소에 매우 취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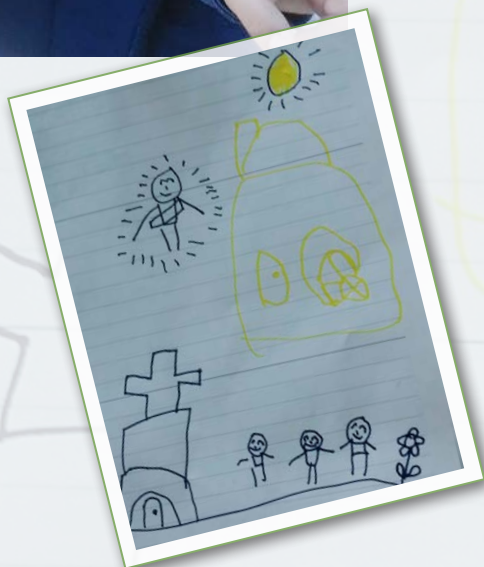


한국오픈도어 기도용사 인터뷰

성명: 박성주

출석교회: 동두천 셋별꽃동산

직장: 웨마기독학교



1. 오픈도어 사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후원하는 성경배달 선교단체가 있어서 북한의 지하교회와 정치범수용소의 인권유린의 실상을 이미 알아왔고 미약하게나마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온라인에서 자료를 찾다가 오픈도어선교회를 알게 되었고 소식지를 받아오면서 전 세계 기독교 박해국가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소식지를 받아보고 있었던 저는 오픈도어에 특강을 요청 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해주셨습니다.

당시 저희 집 다섯 살 아들의 이름으로 약소하게 후원을 시작했고 가장 급박한 필요 국가를 알려주셔서 후원 국가를 나이지리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이에게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공교롭게도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아프리카에 대해 배웠다고 말해주어서 깜짝 놀랐던 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어린이 박해국가지도에 집에 붙여놨는데 6살 된 아이가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지교회와 실화 내용의 어린이 책도 읽어주고 정치범수용소와 관련된 애니메이션영상도 보면서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2. 기도용사로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며 기도와 관련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우선 저는 급박한 국내의 정세에 따라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박해지수 17년 연속 1위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정치범수용소의 인권탄압이 종식되며 복음으로 자유통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전송되는 기도제목을 받게 되면 확인하여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려고 애쓰고, 금요 기도회는 될 수 있으면 꼭 참석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3.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오픈도어 사역을 알리고 계신가요?

2018년 신학기부터는 좀 더 기독교박해국가를 위해 전략적으로 기도해볼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 고민하다가 '기도월력'을 활용해보는 방법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급 아침 큐티와 수업 시작시간마다 기도월력의 해당요일 국가 기도제목을 읽고 함께 학생들과 기도했습니다. 기도월력에 박해순위가 없기 때문에 영국오픈도어에 접속하여 해당 국가의 박해순위를 찾아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교내 게시판과 수업 교실에 큰 사이즈의 박해지도와 어린이 박해지도를 같이 붙여두었고, 어린이 박해지도는 초등 교실에도 나눠드렸습니다. 작은 사이즈의 박해지도를 수업시간에 중고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박해국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4. 아이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일깨우고 계시는데,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담임과 수업을 맡고 있는 중1,2,3학년, 고3 총 6학급의 아이들과 3월부터 12월 현재까지 기도월력으로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박해국가의 상황들을 인식하며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기도가 응답된 사례도 알려주고 싶었는데, 지난 10월 초에 수단 지역에서 6년 동안 항구에 방치된 성경책이 배포되었다는 기사가 있어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중3의 한 남학생은 이 내용을 듣고 수단을 위해 더 기도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2학기부터는 초6 사회 수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들과 첫 수업을 시작하면서 본교 교육이념이 "세계를 품는 크리스천 리더"인데 세계를 품는 방법 중 하나로 박해국가를 위한 기도의 동참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초등 교실에 어린이 박해지도가 게시가 되어 있었던 터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드렸고, 최근에 초6 아이들과 <내가 기도하는 기독교 박해국가 소개하기> 주제로 프로젝트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남겨진 기도월력과 박해지도를 버리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을 해보고자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의외로 재미있게 제작해보고 진지하게 발표에 임해주어서 고마웠습니다.



우리의 후원이 사람들에게 힘을 가져다줍니다!



수단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단은 샤리아 법에 의해 통치되고 이슬람은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제약을 받는다. 수단 북부에서는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투옥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일상적으로 교회행정에 개입해 있다. 남부 코르도판(Kordofan) 주에서 자결과 종교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반군에 대한 정부의 전쟁은 본질적으로 시민들과의 전쟁이었다. 그들은 집, 농장, 교회, 병원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했다. 이것은 많은 변화를 야기했고 사람들이 농작물들을 심거나 수확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오픈도어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속적으로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었다.

수단 남부 코르도판 주에 있는 누바 산에 살고 있는 미망인 아미라 주마(Amira Juma)의 삶은 쉽지 않았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녀의 남편은 정부군 비행기가 그 지역을 폭격할 때 들판에 있었다. 결국 그녀의 남편은 살해당했고 그 후의 삶은 정말 비참했다. 우선은 먹

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아미라와 같은 많은 다른 과부들은 경작과 수확을 할 수 없고, 기근에 직면해야 했다. 그들은 항상 한쪽 눈과 귀가 하늘을 향하도록 하며, 정부 폭격기들이 그들에게 폭약을 퍼붓기 위해 보낸 친숙한 광경과 소리에 귀 기울인다. 누바 산맥의 목사인 임마누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때때로 비행 폭격과 장거리 미사일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적들은 와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소와 모든 것을 빼앗아 가며 사람들을 죽입니다."

2016년 6월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의 종식을 모색 중인 수단 정부는 지난해 7월 31일까지 연장된 누바 산맥과 블루나일(Blue Nile), 다르푸르(Darfur) 등 전쟁으로 피폐한 지역에서 휴전을 선언했다. 비록 이러한 움직임이 환영을 받았지만, 관측통들은 미국과 나머지 국제 사회가 수단과의 관계 정상화에 너무 빨리 움직이지 않도록 경고하고,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종교적 자유를 포함한 수단에서의 근본적인 개혁을 장려하도록 보장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식량이 부족



하다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식물 재배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거나, 정부 통제 지역 근처의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폭격이거나, 원조가 중단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 때문에 그랬다. 또 사람들이 심고 수확할 수 있는 곳은 거리가 너무 멀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오픈도어의 지속적인 후원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다. 이 사역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후원 덕분에 도움은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적기에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런 곳에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수단은 대부분 이러한 지역사회에 대한 구호 원조를 차단하고 있으며, 우리와 우리의 현장 파트너들은 필요한 도움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제공하는데 매우 창의적이어야 했다. 오픈도어는 그들에게 음식과 약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특히 과부나 고아와 옷을 그리고 수수 시럽과 땅콩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음식을 찾아 과부나 고아들을 위해 돈을 보내기도 한다. 이것이 아미라와 같은 사람들에게 끼친 선한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녀는 많은 고난을 받은 가운데 교회를 만나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을 고백하였다.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녀가 땅을 경작하는 것을 도왔다. 도움을 준 사람들은 그것이 작다고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생명이 되어 다가 갔다. 모든 미망인들을 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고 고백한다.

교회와 학교는 종종 교회 구성원과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 자신의 농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픈도어는 트랙터를 기증했는데, 트랙터의 사용은 우리의 지역 파트너들에 의해 관리된다. 이 트랙터는 그들의 농장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와 학교의 농장에서도 사용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도움 외에도, 오픈도어는 격려 세미나, 교육 사업, 그리고 여성 세미나 등을 통해 정기적인 훈련을 진행하게 된다.



주님께서 저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비스와스(Biswas) 목사는 북 인도지역의 한 교회 목사이다. 최근 그는 10명의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잔인하게 폭행당했다. 이유는 단 한가지 많은 힌두교인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또한 당국에 신고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개종을 시키도록 함'이라는 죄목으로 엄청난 벌금을 물렸다. 오픈도어는 그가 벌금을 내는 것을 도와주었고 그에게 직접 찾아가 기도하고 격려로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다음은 비스와스 목사가 어떻게 핍박을 받았으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찾아와준 오픈도어와 주님께 감사하는 대화를 요약한 내용이다.

모든 사람들이 작은 거실로 들어서자 집안에는 무언가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최근 비스와스 목사에게 일어난 사건은 여전히 가족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상처로 남아있는 듯 했다. 빨간빛 스카프로 머리를 감싼 비스와스의 부인은 마실 차를 대

접하고 나서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북받쳐오는 감정을 억누르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뗐다. "저 같은 보잘것 없는 목사에게 오픈도어 여러분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 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감사를 표현해도 이 은혜를 갚을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오픈도어를 통해 저를 도우시기 전까지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저는 긴 시간 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스와스는 비록 많은 힌두교인들이 사는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동네 사람들과 비교적 평화롭게 살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몇의 이웃은 그가 목사로 사역하는 것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품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비스와스가 목회를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물었다. "교회 예배가 진행될 즈음이면 저는 심방할 때 보다 더욱 긴장을 합니다. 저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항상 주님을 예배해 왔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반대한다 해도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반석과도 같은 신앙의 힘이 가득 실려 있었다. 비스와스는 소랍에게 차 한잔을 건네며 말을 이어나갔다. “그날이 바로 사건이 터진 날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했죠. 근처 힌두교 사원에서 나를 부른다고 하더군요.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어주었죠. 문을 열고나서 벌어진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10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그들이 모두 이 도시의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했습니다. 그들은 당장 리볼버 권총을 제 머리에 가져다 대며 위협하더니 경고도 없이 발로차고 세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들은 매우 화를 내며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는데 제가 마을사람들을 피어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마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려는 듯 여기서 말을 멈추고 고개를 떨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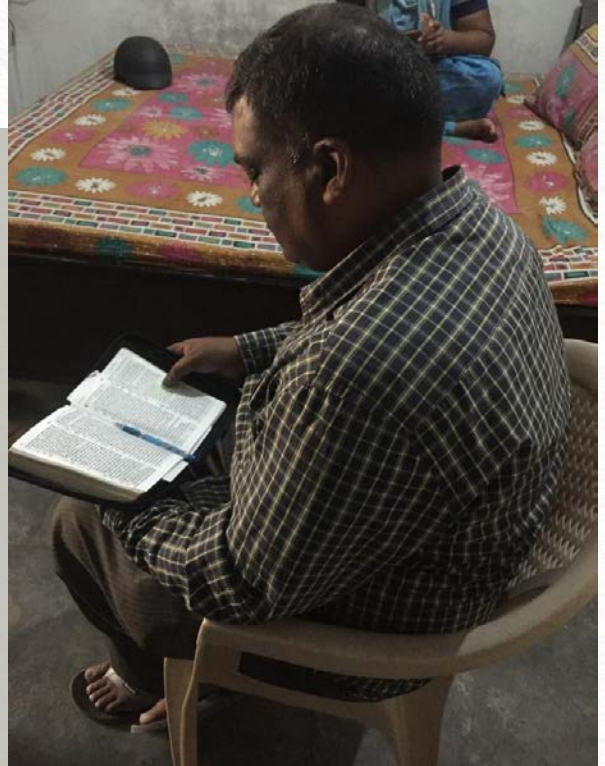
“그들 중 한 명이 저에게 큰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네 스승이란 놈을 1년 전에 죽였지. 이제 네 차례야’ 라고 말이지요.”

그는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 말을 이어나갔다. “1년 전 마을 원로목사님 중 한 분이 피살되었던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분은 저를 처음으로 교회로 이끌어준 선생님이었어요. 그 당시 누구에게 왜 피살되었는지 오리무중이었는데 이들이 저의 멘토를 참혹하게 살해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치가 떨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였다. “그때 저는 주님께 여쭙었습니다 ‘이렇게 참혹한 결과가 과연 주님의 뜻이었던 말입니까? 나는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데 결국 돌아오는 게 죽음이란 말입니까?’”

“정신적이면서도 육체적인 고통 속에 그래도 저는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사자우리에 있는 다니엘처럼 구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님.’”

비스와스 목사는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건 기적이었어요. 마음속 깊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저를 발로 밟고 폭행하던 무리 중 한 명이 폭행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 저놈에게 큰 벌금을 물리자!’ 라고 말이



죠.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제가 악한 무리들에게 생명을 잃는 것을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 비스와스 목사는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물게 되었는데 무려 8개월 동안의 그의 월급 정도를 즉시 내어야만 했다. 그는 저축해놓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 은행에서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만 했다. 이 사건은 비스와스 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 엄청난 경제적 위기를 초래했다.

오픈도어는 파트너십을 통해 비스와스 목사가 겪어야만 했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접한 후 물려진 벌금 뿐 아니라 생활비 등 그와 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돈을 지원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픈도어가 파트너십으로 저에게 베풀어준 모든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를 지원해준 모든 분들에게 저의 감사의 마음을 꼭 전달해 주십시오.”

대화가 어느 정도 무르익을 즈음 소랍은 시편 55편22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그들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비스와스와 그의 부인을 위해 기도했다. 기도하는 내내 흘린 눈물은 고통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 드리는 눈물이었다.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자 모집(전임)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선교에 헌신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모집인원

현장 선교사 (여성 사역부분 : 0명 / 일반 사역부분 : 0명)

- ▶ 주요업무 : 선교회에서 지정하는 현장사역을 수행 (개별 협의)
- ▶ 교회 및 노회(지방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분
- ▶ 교육부 인가의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M. div)를 받은 분
- ▶ 중국어 가능자 우대
- ▶ 여성사역부분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하며 독신자 우대
- ▶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특히 북한선교에 헌신된 자
- ▶ 연령 : 45세 미만 (예외 가능)

제출서류

-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 ▶ 추천서 2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증명서 사본 (면접 시 지참)

기관소개

- www.opendoors.or.kr 와 www.opendoors.org 사이트 참조
- 사역 조건 - 국내근무 : 월~금, 09:00~18:00, 4대보험적용, 급여는 개별 협의
- 선교 파견자는 선교회에서 사역비를 지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협의함
- 모집기한 : 구인시까지
- 문 의 처 : 이제나 간사 : 010-4668-6356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서류제출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 받는 성도들과 함께해 주세요!

박해 순위 50개 국가의 총인구는 약 48억9천만 명,
이중 기독교 인구는 약 6억5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기독교인들 중 33%인 약 2억1,500만 명이
신앙 때문에 높은, 또는 극단적 수준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박해와 관련한
강의나 설교를 원하시는 단체, 교회는
아래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요청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에서 상단 '오픈도어참여' 클릭
전화: 02)596-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오픈도어 박해퍼즐



| | | | | | | | |
|---|----|--|---|----|---|---|--|
| | | | 3 | | 4 | | |
| 1 | 2 | | | | | | |
| | | | | | 5 | 6 | |
| | | | 7 | | | | |
| | | | 8 | | | 9 | |
| | | | | | | | |
| | 10 | | | 11 | | | |
| | | | | 12 | | | |



● 가로열쇠

1.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에게 붙여준 애굽식 이름, 의미는 '신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는 산다'는 뜻이다. (창 41:45)
4.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들의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출 6:4)
5. 구시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 (습 1:1)
8. 야게의 아들로서 잠언 30장을 기록한 사람 (잠 30:1)
9. 이스라엘의 율법사 혹은 교사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제사들이 간혹 예수님을 이러한 존칭으로 불렀다. (막 9:5)
10. 하나님께서 부르신 야곱의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 (창 32:28)
12. 이삭의 아내이자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창 25:20)

● 세로열쇠

2.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샘)을 이렇게 불렀다. (창 16:13)
3.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도시이다.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을 그 도시로 보냈다 (대하 2:16).
4. 다윗의 용사 히데의 고향으로 에브라임의 발원하는 시내를 말한다. (삼하 23:30)
6. 헤스본 성문의 이름이다. (아 7:4)
7.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장사하던 도시 (행 16:14)
11. 사무엘이 소년이었을 당시의 제사장. 사무엘은 그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삼상 2:11)

▣ 지난호 정답 ▣

| | | | | | | | |
|---|---|---|---|---|---|---|---|
| 에 | 브 | 라 | 임 | | | 마 | 태 |
| 바 | | 기 | | 가 | 다 | 라 | |
| 다 | | 스 | 루 | 야 | | | |
| | | | | 바 | 돌 | 로 | 매 |
| 그 | 나 | 아 | 나 | | | 이 | |
| 리 | | | 다 | 브 | 네 | 스 | |
| 스 | | 요 | 나 | | | | |
| 보 | | | 엘 | 라 | 단 | | |

▣ 지난달 당첨자 ▣

12월호 당첨자가 없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메일로 정답과 상품을 받으실 **휴대폰 번호**를 적어 응모하세요.
3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odsk@opendoors.or.kr (2019년 01월 10일까지)

지역별로 진행되는 오픈도어 지역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오픈도어 지역 모임

- 후원자, 300 기도용사, 300 후원이사 등 누구나 관심을 가진 분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역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이벤트 및 공지사항' 으로 접속하시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전화: 02)596-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opendoors.or.kr



한국오픈도어선교회에 내시는 모든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66조의 3 및 제47조, 제49조
동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로 연락 주시면, 연말정산시
세금 공제 혜택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해 드립니다.

전화 : 02)596-3171

메일 : odsk@opendoors.or.kr



한국 오픈도어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세계기독교박해순위(World Watch List)에서 북한은 18년 연속으로 1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또한 극단적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광의 여정을 걷는 북한 성도들의 손을 잡아 주세요!

여러분들의 후원이 영광의 여정을 기꺼이 걷고 있는 북한 성도들에게 생명으로 다가 갈 것입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호, 교육 및 훈련에 사용됩니다.

후원계좌: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9길 10, 영성빌딩 4층

전화번호: 02-596-3171 팩스번호: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19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길 바라며...

| | | | | | | |
|----------|-------|---------------------------------|---|----------|---|---|
| 성경 훈련 | 선물 1 | 아프리카의 박해 국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전달 | × | 5,000원 | = | 원 |
| | 선물 2 | 시리아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 × | 70,000원 | = | 원 |
| | 선물 3 | 중동의 목회자 훈련 사역 | × | 150,000원 | = | 원 |
| 생존 | 선물 4 | 위험에 처한 무슬림 성도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 | 100,000원 | = | 원 |
| | 선물 5 |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 | 50,000원 | = | 원 |
| | 선물 6 |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 사역 | × | 80,000원 | = | 원 |
| 여성 | 선물 7 | 박해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영육간의 돌봄 제공 | × | 30,000원 | = | 원 |
| | 선물 8 | 무슬림 국가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 | 80,000원 | = | 원 |
| 어린이 | 선물 9 |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 신앙 교육 | × | 20,000원 | = | 원 |
| | 선물 10 | 박해 최상위 10개 국가 어린이들에게 기독교서적 전달 | × | 10,000원 | = | 원 |
| 난민 | 선물 11 | 중동의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대피소와 구호품 제공 | × | 100,000원 | = | 원 |
| | 선물 12 | 한 사람의 난민의 훈련과 의료적 돌봄 | × | 40,000원 | = | 원 |
| 총 계 | | | | | = | 원 |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opendoors.or.kr

참여안내 보내주신 헌금은 후원자분들의 뜻에 따라 각 선교지에 보내어집니다.

1. 전달하려는 선물에 표시하고 총 선물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캠페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02-596-3171) 또는 이메일 (odsk@opendoors.or.kr)로 선물 신청 내역을 알려주세요.

